

국세·지방세 ‘뚝’... 광주·전남 세수 확보 ‘비상’

부동산 시장 위축... 취득세 등 감소
교부세, 시 1200억·도 1400억 축소
지방세, 시 176억·도 145억 덜 걷혀
추경 최소화 등 긴축예산 불가피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올 1분기(1~3월) 국세·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광주·전남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도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예산 긴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의 올해 1분기(1~3월) 지방세 수입은 5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96억원보다 176억원(3.2%) 감소했다. 전남도도 올해 8494억원으로 지난해 8639억원 대비 145억원(1.7%)이 덜 걷어졌다.

같은기간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잠정 징수액은 총 23조61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365억원(8.7%) 감소했다.

17개 광역시·도중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과 서울이 각각 21.1%, 19.7% 급감했다. 이어 대구(10.4%), 강원(10.2%), 경기(8.9%), 대전(8.2%), 인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 (최소~최대)

| | |
|-----|------------|
| 광주시 | 1126~1216억 |
| 전남도 | 1305~1409억 |

*올 4월말 전년대비 기준

지방세 감소액

| | |
|-----|-------------|
| 광주시 | 176억 (3.2%) |
| 전남도 | 145억 (1.7%) |

*올 1분기(1~3월) 전년대비 기준

천(-7.8%)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의 감소 폭은 다른 지역보다 낮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가뭄이 우려된다.

지방세에 이어 국세까지 감소하면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일선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4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에 상된다”고 진단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

당할 수 없는 지자체에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6조~6조5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제주도를 제외한 14개 광역시·도별 교부세 감소액 추정액은 광주시는 1126~1216억원, 전남도 1305~1409억원으로 조사됐다. △부산 1558~1682억원 △대구 1274~1376억원 △인천 924~998억원 △대전 1110~1199억원 △울산 877~947억원 △세종 111~120억원 △강원 1114~1203억원 △충북 802~866억원 △충남 862~931억원 △전북 1122~1211억원 △경북 1711~1848억원 △경남 928~1002억원 등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단위 지자체 중 교부세 감소 폭이 가장 큰 상위 5곳 중 3곳이 전남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지역 중 가장 감소 폭이 큰 곳은 해남으로 416~449억원이며, △고흥 374~404억원 △신안 342~36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세수 감소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지방소득세 감소가 원인으로 꼽힌다. **2면에 계속**

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



ACC 하늘마당 포토존 광주 시민들이 7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 새 단장된 형형색색의 포토존을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조명은 일몰 이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 **나건호 기자**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정부와 대화 중단”

‘유혈 진압’ 광양서 긴급 위원회
“대정부 투쟁 결의” 노·정 갈등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7일 한국노총은 광양지부 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경사노위 대화기구

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탈퇴 방법과 시점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집행부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고용노동 및 이와 관련한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해 노·사·정이 협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한국노총은 그간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해 왔지만, 이날 탈퇴 선언 이후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광양서 빚어진 한국노총 간부 강제 진압 사태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망루 농성을 펼치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머리를 다친 채 구속 수감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폭력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뿌리 깊은

노동 혐오가 숨어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어떤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임단협을 하고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물러난다면 제3의 광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파했

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국노총은 150만 명의 조합원을 지키고 2500만명의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윤 정권에 대한 투쟁을 결의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2023 STREET CULTURE FESTA IN GWANGJU

6.9 | 금 - 6.11 | 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다 함께 빛나는
기획도시 광주

01 배틀라인업8

- ▶ 합합 등 4종목 1:1 댄스 배틀
- ▶ DJ부스, 그래피티 설치, 댄스 티칭 프로그램 운영

02 스퀘어@프린지

- ▶ 스트리트댄스 온 스테이지 팀 퍼포먼스
- ▶ 엠비셔스, YGX 등 국내외 유명 댄서 및 심사위원 쇼케이스

주최 광주광역시 | 빛고을댄서스

주관 gjto 광주문화재단 | 광주문화재단 | KBS 광주KBS방송총국 | 광주문화재단